

**출판물에 게재될 것을 승인 또는
용인 하에 한 발언은 명예훼손 책임져야**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음악시장 조사회사인 오리콘(オリコン)이 월간지의 코멘트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발언자인 烏賀陽弘道씨에게 5,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지난 4월 22일 코멘트 기사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인정, 10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烏賀陽씨에 의한 반소(反訴)는 기각됐으며 5월 2일 항소했다.

문제가 된 코멘트는 출판사 인포번(インフォバン)이 발행하는 월간지 「사이조오」(サイズ-) 2006년 4월호에 게재되었는데, 오리콘의 음악 히트차트(ヒットチャート)에 관해 烏賀陽씨는 “예약만 해놓고, 다음에 해약하는 공(空)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코멘트를 했다.

이 소송에서는 취재에 응한 개인의 코멘트와 기사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주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모아졌다.

재판부는 “편집권은 출판사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코멘트를 그대로 게재하는 데 동의하거나, 게재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용인하고 코멘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의 경우는 烏賀陽씨가 원안에 스스로 수정을 가하고 편집하여 그대로의 형태로 게재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 “코

멘트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5월 13일자) □

**일본,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채택**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 이어 11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성립되었다. 이에 앞서 10일에 열린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사업자 등이 행하는 유해정보의 판단 등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현저하게 조해(阻害)하는 정보를 ‘청소년유해정보’로 정의했으며, 휴대전화회사 및 ‘퍼스컴’(personal computer) 메이커 등에 ‘필터링 서비스’(filtering service)의 제공을 의무화시켰으나, 벌칙은 두지 않았다. 유해정보의 판단은 민간의 제3자 기관에 위임하되, 다만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필터링 추진기관은 총무성이나 경제산업성의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일의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다양한 정보에 관한 정보발신이나 액세스(access)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다. ▲필터링의 기준을 설정한 내용에 따라서는, 표현·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또한 사업자 등이 행하는 유해정보의 판단 등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등 8개 항목의 부대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민간방송연맹은 11일 이 법안의 성립에 대해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우려가 있어 유감”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6월 10일자) □

EU가맹국들 아동 포르노사이트 규제 강화

아동포르노 등의 사이트 규제를 위해 유럽연합(EU)은 올해 말까지의 4500만 유로(약 750억 원)를 들여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가맹국 중 프랑스는 지난 6월10일 인터넷 업체와 협력하여 아동포르노, 테러나 인종 증오를 복돋우는 사이트의 봉쇄책을 올 가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에 이은 조치로, 영국에서는 아동포르노 ‘화상(畫像)’의 해석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EU의 계획은 아동학대, 인종차별,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증폭시키는 비합법 혹은 유해한 콘텐츠를 감소시켜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①비합법·유해 콘텐츠에 관한 핫라인의 설치 ②필터링소프트의 연구 ③인터넷업자의 자주적인 규제능력의 향상에 노력한다는 세 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규제는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침해한다는 비판

도 있으나, 아동의 보호를 중시하는 자세만은 각국이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9월 이후 이용자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 인터넷 업체에 전달하여 액세스 봉쇄를 하는 한편 내용에 따라서는 사법당국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에도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8년 6월 24일자) □

프로그램 편집은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야

중군위안부 문제를 취급한 일본 NHK의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취재에 협력한 시민단체가 NHK와 2개의 제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지난 6월 12일 2심판결을 파기, “취재대상자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신뢰(기대권)는 원칙적으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단을 내렸다.

문제가 된 프로는 NHK가 교육TV에서 2001년 1월에 방송한 ‘전쟁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추궁되는 전시성(戰時性) 폭력’으로, 시민단체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パウネット)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 민간법정 등을 취급했다.

パウネット(바우네트)는 “외부의 압력으로 취재 시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개변(改變)되어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NHK는 “편집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취재대상자가 기대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의무는 없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기대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취재대상자에게 각별한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반드시 일정한 내용과 방법에 의해 프로그램에서 취급할 것을 설명하고, 그 설명에 따라 취재에 응하는 결정을 했을 때는 기대권이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의 경우 “바우네트에 각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고, 취재 시에 일정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방송한다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 기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横尾 재판장은 개별의견에서 “기대권을 침해한 경우 위법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면, 취재활동이 위축되고 보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대권의 보호는 프로그램 편집에 대한 개입을 허용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편집은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며, 따라서 기대권의 법적 보호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소송의 1심인 도쿄지방법원은 2004년 NHK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편집의 자유의 범위 내”라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취재를 담당할 제작회사에 대해서는 100만 엔의 지불을 명했으며, 2007년 2월 2심인 도쿄고등법원은 “바우네트의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NHK를 포함한 3사에게 20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6월 17일자) □

Guardian, 거대 할인점 Tesco 상대 명예훼손 소송 일단 승리

유럽에서 이뤄진 거대 할인점의 세금회피 계획

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상급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Guardian」은 Tesco와의 명예훼손 전쟁에서 승리했다. 어제 예비 심리에서 Eady 판사는 사실탐정에 의해 밝혀진 Tesco사의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세금 계획안이 「Guardian」을 상대로 한 향후 명예훼손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Guardian」의 탐사보도 에디터이자 신문사를 대변하고 있는 David Leigh는 오늘 지면을 통해 두 계획안은 Tesco의 수익에 대해 최대 3천만 파운드 규모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Tesco는 역외 은행과 투자사를 통해 10억 파운드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보도한 「Guardian」을 제소했으며, 신문사는 그 수치가 일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Tesco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제안에는 수용이나 거절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사는 여전히 Tesco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인지세 등 85백만 파운드에서 95백만 파운드 정도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명예훼손법은 원고가 정정보도 제안에 대해 수용이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Eady 판사는 Tesco에게 12월 15일까지 「Guardian」의 정정보도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확정하라고 명령했다. 피고의 정정보도 제안은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되며, 판사는 보도 이후 얼마나 신속하게 정정보도 제안이 이뤄졌는가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Eady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신문사와 책임 편집인 Alan Rusbridger가 Tesco의 세금 회피 사실에 대해 악의적인 조작을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Tesco는 Eady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esco는 성명을 통해 어제의 예비심리는 법정 다툼의 시작에 불과하며, Tesco는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많고 본 소송은 내년에 가서야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Tesco는 이 사건에 대해 「Guardian」은 많은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Press Gazette 2008년 7월 30일자)

않는 게으른 사람이며, 그로 인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을 축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Taylor는 그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그 기사에 대해 한 마디도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더 피해를 크게 했다면서 신문사가 자신과 접촉한 적도 없으며,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aylor는 「Express Newspaper」가 향후 자신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신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도 요구했다.

(Press Gazette 2008년 4월 17일자)

자신의 연금수령을 비하한 신문사에 소송 제기

다섯 자녀를 가진 한 어머니가 「Express Newspaper」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정주부인 Anna Jean Taylor는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하지?” 라는 제목의 2007년 2월 22일자 기사가 자신을 일 년에 3만5천 파운드의 연금을 축내는 다섯 아이의 엄마라고 묘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면 Taylor는 5만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있는 사진을 크게 싣고 ‘무임승차 가족’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Daily Express」의 기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는 그녀에 대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엉덩이를 붙이고 움직이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에 관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Eady 판사는 Max Mosley와 「The New of World」에 관련한 이번 판결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한 새로운 점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53쪽짜리 판결은 프라이버시 소송과 관련해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률 해석에 있어 그의 주목할 만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목요일에 Eady 판사는 Mosley가 첼시에서 다섯 유력인사와 함께 사도마조히즘적인 혼외 정사를 가졌다고 보도한 「The New of World」의 기사와 사진, 비디오와 관련해 6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4만5천 파운드의 비용도 「The New of World」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신문사 자체

의 비용도 몇 십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ady 판사는 유럽 인권 조약과 판례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The New of World」가 익명의 여성을 취재원으로 해 공개한 그 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사에서 익명의 여인은 사도마조히즘적 관계를 가지는 은밀한 조직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밀에 붙이는 것은 불문율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이에 대해 익명의 여성은 모임의 신뢰를 깨고 기자는 그 여성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혐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 카메라를 제공하고 그 작동법을 알려준 것은 그녀가 그 모임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의심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판사는 인권법 하에서 비밀에 관한 법률은 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생활 보호에 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해야 것은 법이 시민의 자율성과 명예, 자존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판사의 무책임한 판결이 아니라, 의회가 이러한 가치들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1998년 입법한 법률이 법원에 의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Eady 판사는 수석 기자인 Neville Thurlbeck가 익명의 여성과 대화한 기록을 제

출할 수 있었다라면 「The New of World」의 Mosley와 관련한 도청이 공공의 관심사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Thurlbeck의 신뢰성이 부족한 증거와 관련하여 Eady 판사는 그가 녹음 목적을 말하는 대화를 기록한 내용 등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며, 그러한 내용들이 기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 성적인 문제와 사생활에 대한 일반적 이슈에 있어서 Eady 판사는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났으며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다면 성적행위를 하는 사람 누구도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밀도 없다고 종종 얘기되어 지지만, 현대사회에서 성인들이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페티쉬 등의 성적인 행동들에까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문스럽다고도 말했다. 판사는 또 범죄적 사안을 노출하기 위한 사생활의 침입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 범죄라는 것이 매우 미미한 것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죄의 취재를 위한 사생활 침입은 항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마리화나를 피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그 사람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아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ady 판사는 추가 의견을 통해 「The New

of World」의 기사가 공중의 관심사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그 모임이 나치를 주제로 한 일이었다. 하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만약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나치 역할을 하고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비웃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생활의 침입은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Eady 판사는 「The New of World」의 편집인 Colin Myler와 Thurlbeck가 그 모임에 나치적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선의의 의도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하나의 표석이 될 수 있음은 부인했다. 그는 이 판결은 사실관계와 출판의 원칙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탐사보도가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8년 8월 1일자) □

**Facebook에 올린 잘못된 정보에 대해
22,000 파운드 배상판결**

자신의 관한 가짜 Facebook 소개란을 만든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업가에 대해 고등법원은 그에 대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이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2만2천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pplause Store Production의 운영자인 Mathew Firshet는 자신의 학교 동창이자 프리랜서 카메라맨인 Grant Raphael이 “Mathew

Firshet가 거짓말을 했는가”라는 제목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맥 사이트(social networking site)와 관련한 영국의 첫 명예훼손 소송으로 여겨지는 이 소송에서 Richard Parkes 판사는 Firshet에게 1만5천 파운드를 회사에게 5천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Mathew Firshet는 또 사생활 침해와 관해서도 2천 파운드를 받게 됐다.

담당 판사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Firshet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비하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당한 돈을 빚지고 있다는 내용 등을 유포한 것은 Firshet가 심각한 신용적 문제가 있으며 그의 사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Raphael은 그 내용이 자신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한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Firshet의 형제에 의해 발견되어 삭제되었으나 그 사이트에 16일 동안 올라있었으며 Firshet의 성적 취향과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이달 초 심리에서 Firshet의 변호사인 Lorna Skinner은 판사에게 Raphael과 Firshet는 2000년부터 사이가 틀어졌으며, Raphael은 그 때부터 앙심을 품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Firshet를 자극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8년 8월 1일자) □